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품덕새길 58 성문교회 우:57995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smchurch>), (밴드: [순천성문교회](#))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58번째 이야기]**

삶에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에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하네  
 아직 추운겨울 이해할수 없는 일이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 삶을 꿈꾸게 하네.. (ccm '봄과 같아서' 중..)



만개하던 벚꽃이 바람에 날려 눈꽃으로 내리는 모습이 유난히도 예뻐보이는 이 날 동역자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학교 고3 친구들]**

교회학교 고3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청년부 소속이 되어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공부한다고 한참을 교회 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오랜만에 목소리도, 모습도 어른이 되어 만났지만 제 눈에 초등학교시절 공원에서 처음만났던 순수했던 수줍은 소년의 모습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명은 군대입대를 앞두고 있고, 두명은 직장을 준비하고 두명은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이 서있는 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만찬]**

년초에 애찬식 으로 예배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성도님들간에 사랑의 교제를 하고자 처음 시도했는데 모두들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짝꿍을 바꿔가며 서로 먹여주고 기도제목을 물어보며 기도해주고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모두 예쁘게 포장해서 성도님들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예쁜 꽃꽂이와 몇가지 음식은 기부로 채워져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재연 집사님 가정]**

이재연 집사님 남편분이 주말에 출장을 가야하는 일이 많아서 교회에 나오질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4째아이 임신의 기쁨을 새해에 주셔서 그 감사로 남편분이 다시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모든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가정 예배]**

주중 성도님들 가정에 방문해서 심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후 세밀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도 뜨거움을 느낍니다. 집사님은 그시간이 너무중요해서 기다려 지신다고 늘 이야기 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손용옥 성도 부부]

손용옥 성도님이 한쪽 다리 불구로 2층 식당에서 식사하기 힘들어 하셔서 1층에다 차려드렸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글도 모르니 예배때 답답하다고 두달 넘게 교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심방과 기도로 성도님의 마음이 열리고 "인자 무슨일이 있어도 교회 나갈라요~"약속하시곤 주일에 아내와 함께 전동차 타고 제일먼저 교회 문을 여십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손용옥 성도님이 믿지 않는 다른 형제들과 동네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한분만 바라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요즘 저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요즘 저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13~15명(절반정도 참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칙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나오지 못한 몇몇 초등부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주보와 말씀엽서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달넘게 나오지 못한 교우들의 신앙이 식지 아니하고 집에서 더욱 말씀보며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교우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과 기대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한자리에서 예배드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도 이야기]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을때는 남편과 노방전도와 거점전도를 했었는데 사회적 거리가 시작되고 부터 노방전도, 거점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것이 더 어려워 봄 썩을 뜯어 부침개 부쳐서 교회주변 상가에 나눠드리면서 바람과 햇빛과 비를 만드신 하나님이 봄을 주셔서 맛있는 썩전을 전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시골가서 봄 나물(두릅, 엄나무)을 뜯어와서 교회 주변 식당과 관계전도 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코로나로인해 생강이 면역력에 좋다고 하여 생강 팍팍 넣고 식혜를 만들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에 노방전도가 조금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기에 그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 장소를 밟으며 기도를 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문교회와 저희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삶에 막막함과 답답함이 올때 언제나 어김없이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문교회에 늘 봄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사계절 봄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일들이 많지만 기도로 함께 이겨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 [기도 제목]

1. 교회 함께 사역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차량운전자,반주자) 주일 아침에 1시간 이상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11시 예배 시간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오후에도 차량운전 때문에 새신자 교육, 성경공부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교회 자립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현재 25~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3. 이재연 집사님 남편과 손용옥 성도님이 계속 교회 출석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4. 찾아가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성도들 가정에 성령충만함이 일어나도록 기도 바랍니다.
5.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정부가 내려 준 방침에 준수하여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교인 수가 적어서 가능) 그러나 절반 정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바랍니다.
6. 아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대상포진이 생겼습니다. 치료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 미선 사모님 어머니님 소천 2020.02.20)